조선 전기 불교미술 정수, 한자리서 만난다

국립중앙博, '조선 전기 미술 대전'
6월 10일~8월 31일 특별전시실서
지장보살도 등 불교유산 94건 선봬
'무장애' 반영 전시 콘텐츠 '눈길'

배희정 객원기자 hbpress@hyunbul.com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지장시왕도(스오코쿠분지). 화기에 시주 물품과 시주자의 이름이 적혀 있어, 16세기 민간서 조성한 도상의 특징이 보이고 있다. 사진=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조선 전기 불교문화유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15~16세기에 조성된 조선 전기의 미술품이 한 자리에 모인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에서다. 특히 총 94건의 불교문화유산들이 소개되는 특별전은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까지 불교미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여서 주목할 만하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재홍)은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전시실에서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 특별전을 개최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개관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 건국 200년 동안 제작된 국내외 72개 기관 소장품 691건이 한 자리에 선보인다. 조선 전기 미술의 주요 흐름을 집중 조명한 전시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보 16건, 보물 63건은 물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5개국 24개 기관에서 40건이 출품되며, 이 가운데 23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이다.

전시는 흰색, 먹색, 금색 등 세 가지 색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프롤로그 '조선의 새벽, 새로운 나라로' △1부 '백(白), 조선의 꿈을 빚다 △2부 '묵(墨), 인문으로 세상을 물들이다' △3부 '금(金), 변치 않는 기도를 담다' △에필로그 '조선의 빛, 훈민정음' 순이다.

불교문화유산 가운데는 보물로 지정된 조계사 목조여래좌상(조선 15세기, 높이 100.6cm)이 1938년 영암 도갑사에서 옮겨진 이래 처음으로 법당을 떠나 전시돼 주목된다. 15세기 조선에 새롭게 들어온 명 티베트계 불교미술 양식이 돋보이는 불상으로, 균형 잡힌 신체와 이목구비와 자연스러운 옷 주름이 뛰어난 조각 수준을 보여준다는 평을 받는다. 15세기 후반 왕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 건너온 지장시왕도와 삼장보살도 등 2점은 우리나라에 처음 공개되는 작품으로 이목을 끈다. 지장시왕도(일본 스오코쿠분지, 1586년)는 삼베 바탕에 지장보살과 열 명의 왕이 화사하게 그려진 196.1×175.8cm 크기의 불화다.

삼장보살도(일본 신쵸코쿠지, 1550년)는 일본 내에서도 전시된 적 없던 작품으로 현재 완전하게 남아 있는 조선 전기의 삼장보살 그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도 왕실 후원으로 제작된 조선 전기 불상과 불화에서부터 불교서적 등 다양한 불교유산을 만날 수 있다.

'배리어프리(무장애)' 트랜드에 맞춰 이번 특별전은 관람객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들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특별전에서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쉬운 설명 패널이 전시실에 비치되고, 어린이용 오디오가이드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시품을 활용한 활동지와 조선 전기 추구미 아이템을 찾는 활동도 전시실에서 즐길 수 있다.

대표 작품 32점을 감상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해설이 한국어와 영어, 한국수어와 음성해설로 제공돼 청력이나 시력에 어려움이 있는 관람객도 전시 내용을 쉽게 즐길 수 있다. 전시실에 비치된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특별전 모바일 리플릿 사이트(www.새나라새미술.com)에서 만날 수 있다.

오대산서 '미래세대와 불교' 토론회 열린다

6월 24~26일 월정사 일원서
교불련 '2025 교수불자대회'
정념 스님, 윤재웅 총장 강연
기후위기, AI, 전법 등 논의

기후위기부터 인공지능(AI), 전법·포교론까지. 미래세대를 위해 한국불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 이하 교불련)는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와 공동으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월정사 일원에서 '2025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한국불교의 준비와 대승보살의 길'을 주제로 열리는 교수불자대회는 한국불교가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회는 윤재웅 동국대 총장의 '미래세대와 불교, 그리고 대승보살의 길'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다.

또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대회 첫날 참가자들과 차담을 겸해 '한암·탄허·만화 스님과 한국불교의 새로운 지평'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마지막 날인 26일 '전통의 지혜와 현대적 자비, 그리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 법문을 할 예정이다.

6월 25일에는 '대학생·청년 전법 특별 세션'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서울 불광산사 주지 혜호 스님을 초청해 '대만불교의 청년 전법과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을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 강연 뒤에는 유주연 대불련 회장, 이수연 대불련 숙명여대 지회장 등이 현장에서 체험하고 느낀 청년 전법의 현실과 과제를 대학생 입장에서 직설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3일 간의 대회에서는 웰다잉, 생명윤리, AI, 생태명상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 10편이 발표된다. 주요 발표 논문으로는 △불교 관점에서 본 웰빙과 웰다잉(장상목·동아대) △행복(열반)을 향한 붓다의 길을 걷는 방안(이수룡·국제포교원)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덕성과 함양에 관한 일고찰(김미자·금오공대) △양자과학 기술과 AI 시대, 그리고 불교와의 관계(김성규·영남대) △분별적 지능에서 직관적 깨달음으로: AI시대의 참선수행(김경회·대구대) △AI가 미치는 미래세대(원혜영·백성욱연구소) △불교 생명사상과 형법(이규호·유원대) △효령대군 유불동원 수기법의 사회적 활용(이종수·중앙대) △명상에 의한 현실창조에 관하여(김선숙·동덕여대) △대학생 전법의 성과와 기대(심혜인·영산대) 등이다.

신중일 기자

"수행, 사회참여는 不二"…인간불교서 배우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 학술대회
6월 8일 통도사 반야암서 열려
대만 4대종문 실천 사례 조명
티베트 불교 세계화 과정 분석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6월 8일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시대적 요구에 호응한 불교는 무엇이 다른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할 때 비로소 실천이 되고, 사회참여는 수행이 될 수 있다."

이병욱 보조사상연구원장은 6월 8일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열린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스님) 학술대회에서 대만불교의 대표적 실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원장은 "불교는 고요한 성찰과 구체적 실천이 함께하는 종교"라며 한국불교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대만의 4대 종문(불광산사, 자제공덕회, 중대선사, 법고산사)의 활동을 설명하며, 이들 모두가 '현실과 호흡하는 인간불교'를 실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아침명상록'을 중심으로 자제공덕회를 창립한 증엄 스님의 사상에 주목했다. 이 원장은 인간불교의 핵심 요소로 △본분을 다하는 삶 △지혜에 기반한 자비 △사회참여와 고요한 성찰(靜觀)의 통합 △투명하고 자율적인 조직 운영을 꼽았다.

이 원장은 "대만의 인간불교는 태허의 인생불교를 현대적으로 계승해, 삶 속에서 수행하고 사회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며 "이런 방향은 한국불교에도 유효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티베트, 일본 등 해외 불교의 현대적 실천 사례를 분석하는 논문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박은정 나란다불교학술원 원장은 티베트불교의 세계화 사례를 조명하며, 전통과 혁신의 창조적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한국불교 역시 과거의 지혜를 현재의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과제로 △현장 중심의 실증 연구 △불교 전통 간 비교 △세대별 수용 태도 분석 △세계화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을 제안했다.

송재근 창원대 교수는 일본 정토진종 교단의 발전과 과제를 소개하며, 현대 일본 사회에서 종교가 겪는 위기를 짚었다. 그는 '사토리 세대'와 'Z세대'를 예로 들며 "이들은 개인 중심의 삶을 중시하고, 가족이나 교단 중심의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도사=하성미 기자

본연문도회, 제10회 '불화이야기'展

6월 29일까지 대구문화회관 · 경북불교대학서

불교미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성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불교미술 본연문도회(회장 조해종)는 제10회 '불화이야기'展을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제13전시실에서, 이어 6월 16일부터 29일까지는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에서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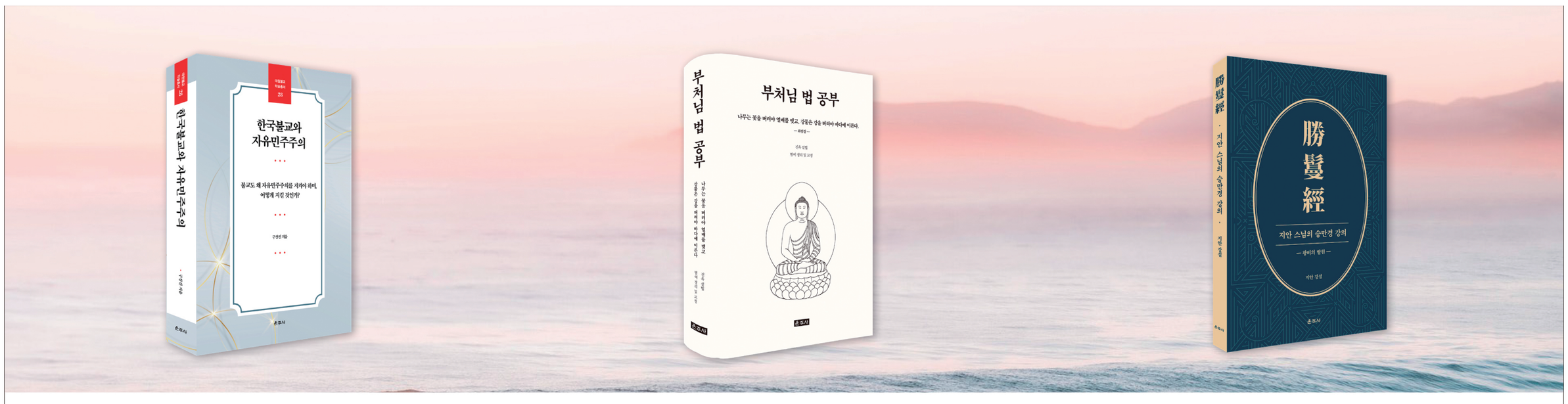
'불화이야기'展은 불화와 단청의 전통 기법을 기반으로 한 창작 활동을 통해, 불교미술의 계승과 대중화를 도모해 온 전시회로, 이번 전시에는 단청장 본연 전연호 선생을 비롯한 문하생과 일반 회원 28명의 총 60여 점이 선보인다.

전시작으로는 전연호 선생의 화엄경 제5권 변상도, 조해종 회장의 관세음보살, 최병훈 작가의 수월관음도, 이문희 작가의 보조국사 지눌 진영, 지용 스님의 문수보살, 도무 스님의 관세음보살도 등이 포함되며, 고전 불화뿐 아니라 단청, 민화, 현대적 해석을 가미한 작품들까지 폭넓게 구성돼 있다.



조해종 작가의 '관세음보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도, 한국사회에서의 역할은?
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
이념 과잉에 포획된 시대에, 불교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불교도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구상진 저/신국판/600쪽/값 33,000원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부처님 법 공부
석천사 진옥 스님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초전법륜의 사성제 법문과 중전법륜의 무상 법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교리들을 알기 쉽게 설하였다.
진옥 설법, 범여 정리 및 교정/신국판양장/440쪽/값 28,000원

대승불교의 근간이 되는 경전!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의
『승만경』은 재가자(왕비)인 승만의 발원과 설법을 담고 있는 경전으로, 여래장과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굳은 신심을 드러내 보이며, 지안 스님이 간략한 해설을 붙였다.
지안 강설/국판변형/172쪽/값 1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